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 발간 · 외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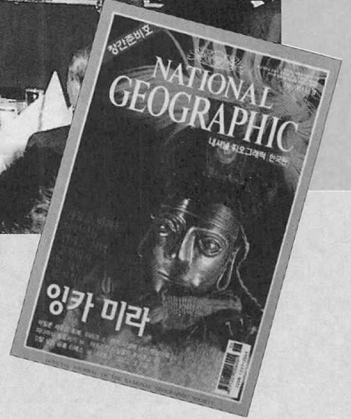
YBM-시사영어사(회장 민영빈)는 지난 8일 조 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2년의 역사를 지닌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지구 곳곳을 탐험하며, 역사와 문화를 담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잡지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현재 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 등 9개 언어로 동시 출간되고 있으며, 정기독자가 4천5백만 명에 이르는 문화 교양지다.

한편,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1919년에 ‘은자

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세계에 처음 알렸고, 이후 총 20회에 걸쳐 한국을 소개하기도 했다. 시사영어사측은 한국에서 매달 3만여 권이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는 한국판 발간을 기념해 내년 1월7일부터 2월 6일까지 63빌딩 특설 전시장에서 한국 관련 사진전을 열고, 이 기간 동안 잡지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구독료의 17%를 할인해 줄 예정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한국판 발간을 밝히는
기자간담회 장면.
한국판 창간준비호
(오른쪽)



약 30명을 밀레니엄 투어에 초대할 계획이다.

→ 2000-0130

〈오원진〉

은석 정진숙 선생 미수연



은석 정진숙 선생

출판계의 큰 어른인 을유문화사 대표 은석 정진숙 선생의 탄생 88년을 기념하는 미수연이 지난 17일 출판계 원로와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출판관련 기관 및 단체장, 가족과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렸다. 은석 정진숙 선생은 한국 출판사(史)의 산 증인이자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출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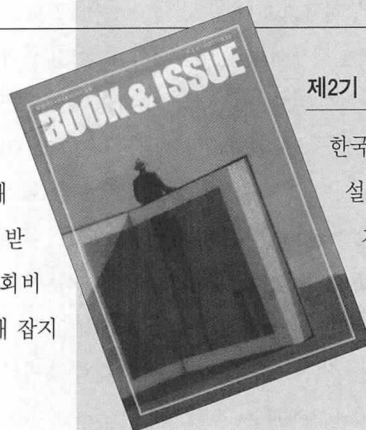
‘잡지의 날’ 기념식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는 지난 1일 ‘제34회 잡지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잡지언론상과 제8회 우수잡지 선정증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고 장준하씨(《사상계》

발행인)가 금관문화훈장, 김진구씨(《자치소방》 발행인)가 보관문화훈장, 안정웅씨(《인쇄계》 발행인)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우수잡지에는 계간 《사회비평》, 월간 《문학과창작》 등 10개 잡지가 선정됐다.

대교 눈높이교육상 시상

대교문화재단(이사장 강영중)은 지난 3일 봉천동 대교사옥 눈높이보라매센터에서 ‘제8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을 가졌다. 참된 사도상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주는 이 상은 올해 권명자 교장(서울 잠일초등), 이은자 교사(옥천 청성초등 모금분교), 박병기 교장(창원 상북초등), 이돈주 교사(대전 대덕중), 정형택 교사(전남 영광고), 채규철 교장(가평 두밀리자연학교), 고 김영재 교사(화성 마도초등)에게 수여했다.



제4호 《북 앤 이슈》

제2기 출판편집자 과정 모집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 부설 한국출판아카데미는 20일까지 ‘제2기 출판편집자 과정’에 참여할 출판사 사원 및 출판에 관심 있는 예비 편집인을 모집했다. 교육과정은 출판 현장 적응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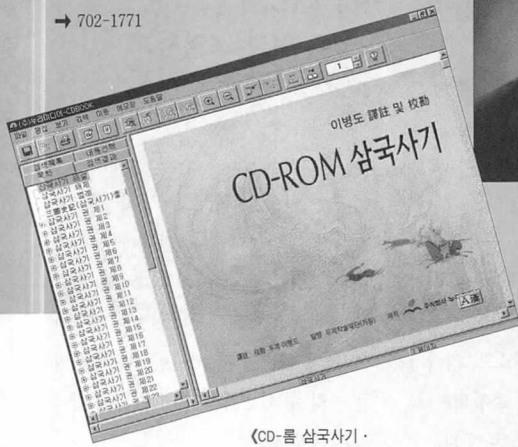
이기웅 열화당 대표, 이중한 출판평론가,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실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편, 출판인회의는 11월 5일 제4호 《북 앤 이슈》를 발간했다.

삼국사기·삼국유사 통합 CD-롬 출시

누리미디어(대표 최순일)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합한 《CD-롬 삼국사기·삼국유사》를 출시했다. 두계 이병도 박사의 역주본을 저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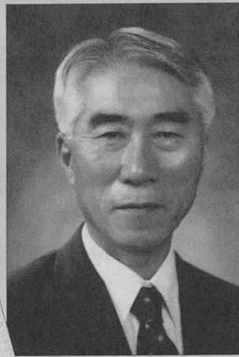
로 한 이 CD-롬은 유니코드 27,000여 한자를 사용했고, 호환성이 뛰어나 한국학 발전에 새로운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품 가격은 개인용 15만원, 기관용 150만원이다.

→ 702-1771



〈CD-롬 삼국사기·삼국유사〉 초기 화면

《모택동 전집》 독점 계약



범우사 윤형두 대표

씨티문고 이대점 열어

씨티문고(대표 송영석)가 지난 11월 이화여대 앞에 5백평 규모의 초대형서점을 열었다. 25만권의 장서를 전시 판매할 씨티문고 이대점(지점장 김인영)은 주문 예약제, 택배제, 과학적인 도서 안내 시스템 등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

범우사(대표 윤형두)는 11월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인민출판사(대표 한무봉)와 《모택동 전집(전 4권)》 발간을 독점 계약했다. 《모택동 전집》은 모두석이 직접 편집한 것으로 중국 혁명기의 역사적 사실을 담았다.

이화여대 학생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신임 이사 영입

교보문고(대표 윤경하)는 영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LG유통의 임원과 자문역을 역임한 이대용 씨를 영업담당 이사로 영입했다. 신임 영업담당 이사는 본·지점 매장영업과 인터넷 사업부문을 총괄한다.

사무실 이전

가람기획(대표 이광식)이 10월 10일자로 대방동에서 마포구 구수동 68-8 진영빌딩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우리 민족문화 세계에 알릴 터”



지식산업사 김경희 대표

한국학·중국학·일본학 관련 서적을 주로 출판해 온 지식산업사(대표 김경희)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문 출판’과 ‘한국인 기록문화상 제정’이 바로 그것. 김대표는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세기에 우리 출판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한 결과”라며 “우리 민

족문화를 살리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문 출판사업은 우리 민족이 보유한 지적 자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외국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선초기사회사》(손보기 지음) 영문판을 올해말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일본어로 된 《한국 근현대 정치사(가계)》를 시작으로, 중국·러시아 등에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김대표는 “지난 한 세기는 우리 민족의 격동기였는데, 우리의 정신적 궤적을 전수시킬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며 이를 위해 기록

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해외 한국인 기록문화상〉을 공동주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상대상자를 국내외의 포괄해 해마다 〈한국인 기록문화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저서전·회상기·일기 ▲전기·평전 ▲심층취재기·현장답사기 ▲영상비디오·기록사진·기록문서 ▲소설 등으로 나눌 계획이다. 〈한국인 기록문화상〉은 내년 6월말까지 응모해 광복절에 발표할 예정이다.

→ 738-1978

〈김정은〉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철학동화 세상의 빛깔들

1. 별나라 서커스단

루카 콰르타나 지음/김홍래 옮김
별나라 서커스단의 피에로 할아버지가 펼치는 신나는 모험!

2. 꼬마 천사 통과 덕의 천지창조 구경하기

에지디오 산탄케 지음/안진원 옮김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세상은 어땠을까요? 동화로 읽는 ‘창세기’ 예요.

3. 날개 달린 얼룩소 [연극 대본]

미켈레 제니시오 지음/김홍래 옮김
크리스마스 이브, 날개 달린 얼룩소가 착한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늘로 오르네요.

4. 허수아비 기드온

그라치아 파사 지음/안진원 옮김
방울새와 참새가 허수아비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이 만든 평화의 나라로 갑시다.

5. 미소를 띠는 소년

리우레타 페라시 지음/안진원 옮김
미소짓게 만드는 이야기,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을 심어 주는 이야기!

6. 검은 성벽을 넘지 말아라 [마약 이야기]

코린 마레스트 외 지음/안진원 옮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고양이 사도, 그러나 역경을 딛고 건일어서는 감동적인 모습!

7. 요정이 된 마녀 우파바루파

인나미리아 가티 지음/안진원 옮김
왕따 마녀 우파바루파, 그러나 착한 마음씨를 가진 우파바루파는 우리들의 친구예요.

8. 한스와 아이들 [전쟁 이야기]

이드리이나 페드론 플비렌티 지음/김홍래 옮김
전쟁으로 파괴된 옛 유고 연방에서 용병 한스와 죽음으로부터 구출된 아이들의 모험!

철학서적
전문출판



http://www.seokwangsa.co.kr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전화 924-6161 팩스 922-4993 천리안 phil6161